‘관광 광주’ 알린 시티 투어버스

이용객 35% 이상 타 지역 방문객
이미지 개선·관광객 유치 큰 기여

광주시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운영한 ‘광주 시티 투어버스’가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티 투어버스’ 이용객 2천77명 가운데 1천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객의 35%가 타 지역 방문객이었으며, 이 가운데 97%는 ‘광주 지역 방문을 타인에게 권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시는 지난 5월~11월까지 모두 77회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했다.

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티 투어버스’가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48%), 담양 죽녹원(28%), 빛고을 국악전수관(17%) 순이었다. 탑승객들은 시티투어 버스가 국립 5·18 민주묘지, 무등산, 빛고을국악전수관, 죽녹원 등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코스로 운영돼 짜임새 있었다고 답했다. 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수단이라고 답했다.

지역 문화와 관광지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곁들인 ‘시티 투어 버스 관광 가이드 서비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용객들은 시티투어 버스 때문에 “광주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 투어 버스 이용객은 남성 38%, 여성 62% 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 23%, 30~40대 37%, 50대 이상 36%로, 30~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투어버스 운행기간을 늘리고 코스도 계절, 테마별로 특색있게 구성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r

고경명 장군 동상 제막식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금산성전투에서 순절한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선생 동상 제막식이 22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북문 옆 무궁화동산에서 열렸다. 새로 만들어진 동상은 고경명 선생이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으로 높이 8.6m, 바닥 면적은 56㎡이다. 이날 행사는 충렬공기념사업회(회장 장형태)가 주관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봉사활동 가던 길… 안타까운 빙판길 낙상

8년 봉사활동 80대 할머니 의식불명

8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80대 노인이 봉사활동을 가던 중 빙판길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10분께 북구 두암동 J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강모(82)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강 할머니는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였다.

강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 할머니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에서 조식 조리원 보조 봉사활동을 해왔었다. 이날도 봉사활동을 가려고 집을 나서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강 할머니는 8년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봉사활동을 해온 순수 자원봉사자”라며 “나이 팔순에도 열정을 갖고 집안 일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할머니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은 길을 걸어 가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행정서비스 좋아졌어요”

시민 체감지수 작년보다 6점 올라 80점

2,760명 만족도 조사

광주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10일~11월4일까지 대학교수, 민원인, 시 소속 공무원 등 2천760명을 대상으로 ‘2008년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지난해 74.2점에 비해 6.6점 오른 80.8점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80점대 이상인 부서가 전체 60개 부서 가운데 52개로 증가, 행정서비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는 현장중심, 행정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정책 만족도’ 항목의 경우 지난해보다 2.6% 상승한 66.7점으로 평가됐으며, ‘깨끗한 광주, 건강한 시민’이 최고의 정책으로 꼽혔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고객 만족도’는 지난해 80.7점에서 올해 86.1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객 만족도는 지난해 66.4점에서 올해 68.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구아카데미 수료식 광주시 동구청(청장 유태명)은 22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2008 동구아카데미 수료식’ 및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동구아카데미는 ‘아침편지’로 유명한 고도원씨와 탤런트 김성환씨 등 인기 강사들의 강의로 지금까지 1만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남구 양림동 일대서 빛고을 X-마스 축제

25~26일 다양한 행사

광주 남구는 “오는 25일부터 이틀동안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2008 빛고을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문화원이 주최하고 양림동 일대 교회 및 주민들로 구성된 ‘빛고을크리스마스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나눔과 섬김’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타 복장을 한 주민들이 마을을 돌며 홀로 사는 노인 40가구에 쌀과 연탄을 전달하고 기독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음악회를 개최한다. 26일에는 떡국 봉사, 비보이 공연, 판소리 공연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은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 근대 문화의 발상지로 사랑과 봉사, 나눔의 정신이 이어져 온 곳”이라며 “양림동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

동구자원봉사센터 전국 최우수 센터 선정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에 선정됐다.

22일 동구(청장 유태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구축, 운영관리, 우수프로그램, 시책사업추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패와 함께 시상금 3백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구자원봉사센터는 탄탄한 복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 구민이 공동복지목표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해왔으며, 노인복지서비스와 국제행사 참가분야에서도 자치단체 최고의 복지센터라는 찬사를 들어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북구 ‘주민자치’ 각종 상 휩쓸어

올들어 17회 수상… 포상금만 15억원

광주시 북구청의 주민자치분야가 올해 실시된 각종 포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시 북구청은 올 한해동안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모두 46회 수상했다. 이중 3분의 1이 넘는 17회를 주민자치사업 평가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 받은 상사업비만 15억원에 이른다.

부구청은 지난 2000년 8월 주민자치과를 신설한 뒤 주민자치(주민자치센터 운영)와 마을만들기(마을의 삶터 가꾸기 등), 평생학습(지역특화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기회지원), 민간협력팀(지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민간단체 협력) 등 4개 팀으로 나눠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문화동의 ‘도심 속 천지인 문화소통 길’ 사업이 최종 선정, 13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최한 ‘2008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북구청은 대상과 우수상 등 4개 상을 휩쓸었다.

공원기 북구 주민자치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도 주민자치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